

서울 A대학 동남아시아 유학생의 학업 경험에 대한 탐색적 연구*

김 지 훈**

I. 들어가는 말

한국의 외국인 유학생, 특히 동남아시아를 포함한 아시아 출신 유학생은 국내외 유학생 연구에서 흥미로운 연구 대상으로 점점 더 주목 받고 있다. 한국의 외국인 유학생 수는 말 그대로 ‘폭발적인 성장’세를 보여왔고, 중앙일보, 조선일보, 영국 타임스(THES) 등의 기관에서 수행하고 있는 대학 평가의 국제화 지수에 포함된 영어 강의 수, 외국인 학생 수 등의 수치 면에서 볼 때 한국 대학은 ‘급팽창적인 국제화’를 진행하고 있거나 이를 추구하는 것처럼 보인다. 이제는 서구나 일본, 싱가포르, 홍콩, 대만 등 다른 아시아 국가처럼 한국 대학 역시 글로벌 체계 속에 편입되어 경쟁하고 있으며 급팽창적 국제화가 진행 중이다. 이러한 한국 대학의 국제화와 그 맥락에서 유학하고 있는 유학생에 대해 외국에서도 점차 흥미롭고 중요한 사례로 인식하고 있다(Ishikawa 2009; Marginson 2006; Ninomiya et al. 2009; Trent 2012; 박소진 2013).

급팽창적 국제화는 몇 가지 관련 지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본 논문은 2013학년도 인하대학교의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 인하대학교 사회교육과 조교수. jhkim@inha.ac.kr.

2009년 현재 367만명의 전세계 유학생 중 한국을 포함한 아시아 국가들은 전세계 유학생의 10%(375,927명)를 넘게 유치하였는데, 특히 지난 10년간 아시아 국가는 전통적인 유학 대상지였던 북미와 유럽 보다 훨씬 더 높은 증가세를 보여왔다(OECD 2011: 339). ‘Study Korea Project’를 비롯한 한국 정부와 대학의 세계화 전략과 더불어 국내 대학의 학부 및 대학원 학위과정의 영어강의 확대, 교환학생 프로그램 증가 등에 따라 한국 대학 내 외국 유학생은 지난 10여년 사이 빠른 속도로 늘어나며 한국 대학의 주요 구성원으로 성장하였다. 그 결과, 2001년 1만여명에 불과하던 국내 외국인 유학생은 2011년에는 약 9만여명으로 급속한 속도로 증가하게 되었으며(한국교육개발원 2011), 유학생들은 한국 사회의 새로운 이주자 집단으로 부각되었다(안영진 2009; 김지훈, 이민경 2011).

동남아시아 출신 유학생들은 두드러지는 주요 집단이 되고 있다. 2010년 기준으로 중국 유학생이 전체 유학생의 약 70%(63,676명)를 차지하지만, 최근에는 동남아시아 국가 다수가 국내 외국인 유학생 출신 주요국으로 부상하고 있다. 예를 들어, 베트남 유학생이 3,033명으로 전체 유학생 출신 국가 중 규모 면에서 3위를 차지하였을 뿐만 아니라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필리핀, 태국, 캄보디아 등 동남아시아 국가 다수가 국내 외국인 유학생 출신 주요 국가 20위 안에 포함되어 있어(출입국 외국인정책 본부 2011), 동남아시아 국가 유학생들은 한국 대학의 유학생 집단에서 그 중요성이 상당히 증가하였다. 동남아시아 출신 유학생들은 최근의 추세를 볼 때 앞으로는 더욱 중요한 비중을 차지할 가능성이 크다고 여겨진다.

이와 같은 변화의 흐름에도 불구하고 한국 대학의 세계화 과정에 대한 연구(박소진 2013)나 동남아시아 출신 유학생을 대상으로 한 학업 경험에 대한 기존의 연구는 매우 드물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현재의 한국 대학 맥락에서 동남아시아 국가 출신 외국인 유학

생들은 한국 대학 생활과 학업을 어떻게 조망하며, 한국에서의 학업에 어떻게 적응하고 어떠한 전략을 구사하며 대학생활을 영위하고 있을까?”라는 탐색적 연구 질문에 답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다양한 학문 분야를 전공하는 14명의 동남아시아 출신 학부생, 교환학생, 그리고 대학원생에 대한 심층 질적 면접을 통해 국제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서울 소재 A 대학을 사례로 한국대학에서의 동남아시아 출신 유학생의 학업 경험과 대처 전략의 실재를 탐색적으로 파악해 본다.

동남아시아 국가 출신 유학생의 학업 경험의 실재를 파악하는 것은 다음과 같은 이론적, 실제적 기여를 할 수 있다. 첫째, 그간 유학생 연구에서 주목 받지 못한 주요 유학생 집단에 대한 이해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한국에서 수행된 기존 연구들은 특히 중국 유학생(예를 들어, 송원영, 리난 2008; 박소진 2013) 혹은 영어로 운영하는 프로그램에 재학하는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예를 들어, 김지훈, 이민경 2011; 주희정 2010)에 주로 한정되어 이루어져 왔다. 따라서 본 연구는 그간 국내의 유학생 연구가 특정 국가나 특정 언어만 사용하는 유학생 집단에 집중되어 있던 것에서 벗어나 국내 유학생 중 주요 집단인 동남아시아 출신 유학생에 대한 이해를 확장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둘째, 한국의 동남아시아 출신 유학생의 학업 경험과 대처 전략의 실재를 파악하는 것은 점차 중요해지고 있는 아시아 국가 간의 유학생 연구와 아시아 대학의 세계화에 대한 논의에 기여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행위자의 입장에서 한국 대학의 ‘세계화’의 수준, 위치를 파악하고 이들의 경험을 보여줌으로써 최근 들어 주목 받고 있는 유학생 유치를 위한 국가간 경쟁에 관한 연구 분야(예를 들어, Ishikawa 2009; Margins and Sawir 2005; Marginson 2006; Marginson 2011; Ninomiya et al. 2009), 세계 수준의 고등교육 시장에 대한 연구(황인원 외 2012; Dixon 2006;

Margison and van der Wende 2007), 교육의 초국적성에 대한 연구 분야(예를 들어, Waters and Brooks 2011)에 대한 학술적 합의와 한국 대학의 세계화의 현재와 미래에 대한 논의를 풍부하게 할 수 있을 것이다.

이 글은 먼저 국제화가 진행 중인 대학 맥락에서의 유학생 학업 연구와 한국의 유학생에 대한 기존 논의를 검토한 후, 이 연구에서 사용한 연구 방법과 연구 대상자에 대해 살펴본다. 결과는 두 영역으로 나누어 논의한다. 먼저, 서울의 상위권 대학 맥락에서 동남아 출신 유학생의 학업 경험과 어려움은 어떠한지를 살펴본 후, 다음으로 이러한 학업 어려움에 대응하는 유학생들의 대응 전략을 살펴본다.

II. 대학의 급팽창적인 국제화, 유학생 그리고 ‘민족의 패러독스’

1. 대학의 급팽창적 국제화와 유학생

유학생은 호주와 같이 유학생에게도 이민자 자격을 부여하는 일부 국가의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Caluya et al. 2011) 대부분의 국가에서 중단기 체류자(sojourner)로서 대개 새로운 문화에서 이주국의 언어를 학습해야 하는 특별한 형태의 이주자로 간주된다. 따라서 유학생이 사용하는 언어에 대한 구사 수준이나 유학생의 문화에 대한 적응 정도가 유학생의 학업과 생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것은 쉽게 짐작 가능하다(Zhang and Mi 2010). 영어로 발간된 기존 연구들은 주로 영어권 국가의 외국인 유학생을 대상으로

외국인 유학생들의 문화 적응이나 언어의 어려움에 따른 학업 적응을 중심으로 논의하고 있다(예를 들어, Myles and Cheng 2003; Sam 2001; Sherry et al. 2010; Zhang and Mi 2010).

그러나 Caluya et al (2011: 85-6)이 잘 지적하고 있듯, 유학생에 대한 문화 충격(cultural shock)이나 문화 적응적 접근의 연구는 “외국 학생의 개인의 문제”라는 프레임으로 바라봄으로써, 유학생의 집단적인 학업 경험이 특정 국가나 개별 대학의 세계화 전략, 유학생에 대한 이민정책, 학업 환경 등과 같이 “보다 거시적인 구조적 맥락 하에 놓여있음”을 간과하고 개인적인 문제로 치환하는 한계를 갖는다.

뿐만 아니라 한국 내 대학이 최상위권 대학, 수도권 대학, 지방 대학 등 위계에 따라 학업 환경이나 대학 세계화의 정도가 상이하듯, 전지구적 수준의 고등교육 시장 내에서 개별 국가와 개별 대학들은 글로벌 위계에서 상이한 위치를 차지하며, 유학생을 유치하기 위해 분절된 영역(segment)에서 경쟁하고, 분화하고 있으며(Horta 2009; Marginson 2006; Marginson 2007; Marginson 2008; Walker 2010), 유학생들은 이러한 맥락 속에서 학업과 생활을 영위하고 있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김종영, 2008; 박소진 2013). 외국 대학에서의 “적응과 학습의 경험은 개인적 수준에서는 ‘성숙화 과정’”(Murphy-Lejeune 2004: 113; Gu et al. 2010: 19 재인용)이기도 하지만, 유학 대상국가의 자국 학생(home students)과 교제의 정도, 학습 및 생활 환경이 중요한 영향을 미침으로 인해, 유학생의 적응은 단선적이거나 수동적이지 않다는 점도 고려할 점이다(Gu et al. 2010: 13-20; Sawir et al. 2008). 이러한 맥락에서 외국인 유학생의 실제 경험(lived experience)을 통한 연구는 “대학의 상이한 국제화(internationalization) 과정을 가장 잘 드러내 보일 수 있다”(Caluya et al. 2011: 88). 따라서 최근 십 여 년간 급속한 속도로 진행된 한국

대학의 국제화의 맥락에서 한국 대학에 재학하고 있는 외국인 유학생의 학업 경험이 어떠한지를 탐색적으로 파악하는 것은 그 자체로도 흥미로운 주제일 뿐만 아니라 유학생의 경험을 이해하는 데에 필수적인 요소로서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김지훈, 이민경 2011; 박소진 2013).

2. 국내의 유학생 연구 현황

국내의 유학생 연구는 유학생 집단이 한국에서 중요한 이주자 집단으로 부각됨에 따라 점차 연구의 대상으로 주목 받아 왔으며, 연구 주제에 있어서도 점차 다양화되어 왔다. 김군옥 등(1973)에 의해 처음 한국의 외국인 유학생에 대한 사회학적 연구가 시작된 이래, 지난 10여년간 한국 내 외국 대학생에 관한 연구들은 주로 외국인 유학생에 대한 현황이나 정책(박은경, 김민일 2009; 주현준 2007), 유학 초기 적응의 어려움(권양이 2008; 송원영, 리난 2008; 오재연, 남민우 2009), 학업 스트레스(김귀성, 황지인 2009; 김민선 외 2010; 김지영, 김원인 2008; 나임순 2006; 임수진, 한규석 2009)에 대한 연구에 집중되어 왔다. 이러한 연구들은 특히 한국 내 유학생들이 언어와 생활 적응 측면에서 겪고 있는 어려움을 지적해 왔다. 이에 따라 이러한 어려움들에 대한 실용적이고 응용적인 개입 프로그램 개발(김태자 외 2008; 오재연, 남민우 2009; 유지현 외 2009; 이수상 2009; 이훈병 2011)을 목적으로 한 연구들도 하나의 연구 분야를 형성하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연구들은 유학생들의 한국에서의 적응 문제를 심리학적 연구 패러다임에 기반한 개인적인 수준의 일방향적 적응문제로 파악하였다. 이는 문화적응론적 관점으로 접근한 외국의 기존 연구와 맥락을 같이하는 것으로 이러한 시각은 유학생 입장에서 학업에 대한 심층적인 이해를 제공하기에는 한계가 있

다. 특히, 한국 대학 맥락에서의 언어의 어려움이 구체적으로 교습과 학습 등 학업 환경에서 어떻게 작동하는지, 이러한 학업 환경에서 공부하여야 하는 유학생들은 그러한 어려움들에 어떻게 대처하는지를 파악하기는 어렵다.

한편, 외국인 유학생의 이주 동기와 이주 과정에 주목한 연구들을 살펴 볼 필요가 있다. 안영진(2009)의 연구는 한국 정부와 한국 대학의 세계화 전략이 중요한 배경 요인으로 작용하기는 하지만, 출신국의 대학에 비해 비교 우위에 있는 한국 대학, 대학의 교육 시설과 저렴한 등록금 등 한국에서의 교육 여건에 대한 인식과 주로 중산층을 차지하는 유학생 가족 배경도 한국 유학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임을 제시하였다. 김지훈, 이민경(2011)의 연구는 학력 자원의 획득을 위한 유학뿐만 아니라 문화적 경험을 위한 유학 동기가 있음을 밝히며, 서구 국가 출신과 아시아와 기타 국가 출신의 유학 동기가 뚜렷이 구별되기 보다는 오히려 혼재되어 나타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또한 유학생들이 한국 대학의 학습 경험에 대해서도 새로운 경험 획득의 장으로도 인식하지만 동시에 비판적인 시각에서 한국 대학 문화를 바라보고 있음을 지적하였다.

연구 대상의 측면에서는, 기존의 외국인 유학생에 대한 연구는 중국인 유학생에 집중되어있거나(강이화 외 2007; 김민선 외 2010; 김선남 2008; 김지영, 김원인 2008; 박소진 2013; 유지현 외 2009; 이익수, 지봉구 2006; 임수진, 한규석 2009), 영어권 국가 출신 혹은 영어로만 운영하는 프로그램(주희정 2010; 김지훈, 이민경 2011)을 중심으로 연구 대상을 한정하여, 다양한 국가로부터 유학 온 소수자의 집합체로 구성되어 그 다양성이 두드러지고 있는 유학생 집단을 제대로 파악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뿐만 아니라 실제 영어와 한국어 강좌를 동시에 수강하여야 하는 많은 유학생들의 학업 경험에 대해 이해하기에도 한계를 갖는다. 특히, 대학의 세계화 정책에 따

라 각 대학들은 최근 영어 강좌의 제공 등 국제화 추세에 따르고는 있으나, 외국인 유학생의 입장에서는 여전히 대학 학업과 현지 생활을 위해 영어뿐만 아니라 현지어 습득을 병행해야 하는 사회 문화적 맥락에 놓여있는 상황이다. 이를 고려할 때, 유학생들의 학업 경험에 대한 연구는 행위자의 관점에서 유학생이 실제로 처한 맥락 하에서 유학생들이 어떻게 학업과 생활을 영위하고 있는지에 대한 심층적인 분석과 이해가 필수적일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서울의 한 대학 맥락에서 외국 학생의 학습 경험을 파악한 주희정(2010)의 연구나 서울의 명문 사립 대학과 지방 대학을 비교한 박소진(2013)의 연구는 주목할 만하다. 주희정(2010)의 연구에서는 외국 학생들의 경험을 영어 강좌 수강, 팀프로젝트 수행, 인턴십 참여를 중심으로 파악하였는데, 교수들의 개인적인 배려와 한국인 학생들의 배타적인 태도에 따른 영어 강의 및 다른 프로그램의 실제 운영에서의 문제점을 지적한다. 그러나 주희정(2010)의 연구는 대학원 MBA 과정 유학생의 경험에 한정되어 있음에 따라 학부 유학생이나 이공계열 유학생의 학습 경험이 어떠한지 이해하거나 한국어 강의를 반드시 수강해야 하는 외국 유학생의 경험을 파악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중국인 유학생을 대상으로 연구한 박소진(2013)의 경우 유학생의 학업 경험은 한국 대학의 세계화나 재정적 필요와 긴밀히 연계되어있음을 밝힌다. 또한 현재 한국의 대학에는 다양한 능력 수준의 유학생이 혼재하고 있으며, 대다수 유학생의 경우 학업과 교우 관계 측면에서 어려움을 겪는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러한 연구 결과가 본 연구가 시도하는 다양한 인종적 언어적 소수자로 구성된 동남아시아 출신 유학생의 경험에도 적용될 수 있는지는 살펴보아야 할 문제일 것이다.

3. 언어 소수자 유학생의 교우관계: '민족의 패러독스(ethnicity

paradox)’ vs ‘민족의 섬 생활’

현재 한국 대학의 맥락에서 살펴보자면, 한국 학생과 친해지기 위해서는 유창한 한국어보다도 유창한 영어가 더 필요한 것처럼 보인다. 국제화를 추구하는 요즈음의 한국 대학의 맥락에서 영어는 한국어에 버금가거나 그 보다 더 우월한 지위를 갖기 때문이다. 이 두 언어 중 하나라도 유창하지 않다면, 같은 나라 출신의 유학생 친구의 존재가 더욱 절실할 지도 모른다. 이주자에게서 동족 커뮤니티의 존재는 이주국에서의 삶의 기회와 질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요 요소 중 하나이고(Heisler 2008; Kivisto 2001), 이는 유학생에게도 마찬가지로 적용되기 때문이다(Kim 2010; Sawir et al. 2008).

본 연구는 싱가포르, 필리핀과 같은 영어권을 제외한 언어적, 민족적인 소수자인 동남아시아 출신 유학생은 한국 대학에서 학업을 어떻게 영위하는지를 파악하는 데에 랄(Lal)의 개념을 확장한 키비스토(Kivisto 2001)의 ‘민족의 패러독스(ethnicity paradox)’ 개념이 유학생 교우관계 및 학업, 생활을 분석하고 설명하는데 유용한 개념이 될 수 있음을 주목한다.

랄은 민족 공동체(ethnic community)가 체류 사회(host society)로의 적응과 동화에 도움을 주는 것을 ‘민족의 패러독스’라고 불렀다(Lal 1990; Kivisto 2001: 571-2 재인용). ‘민족의 패러독스’란 동족 공동체가 모국어 사용이나 모국 문화의 유지 등을 통해 체류 사회의 적응을 위한 그 반대의 성향을 지니도록 하는 대조적인 상황에 주목한 것이다. 키비스토는 더 나아가 초국적 이주자에게도 민족의 패러독스가 적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초국적 행위에 보다 더 적극적인 이들이 통합에도 더욱 적극적으로 보이는 경험적 연구결과를 이해할 수 있는 핵심적인 연결고리는 자신감 (혹은 자존감)일 것이라 추정한다(Kivisto 2001: 571-2; Erdal and Oeppen 2013:

873). 키비스토가 제시한 확장된 ‘민족의 패러독스’ 개념은 다양한 국가 출신 유학생이 산재한 대학의 맥락에서 언어적, 민족적 소수 집단과 이 두 가지 모두에 해당하지만 어느 정도 규모를 이룬 집단의 경험은 차이가 있음을 시사한다. 그렇다면, 한국어 능력과 영어 능력에 있어서 소수자적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비영어권 동남아시아 국가 출신 유학생 사이의 한국 대학에서의 성공적인 적응과 학업 유지에 있어서 동족 커뮤니티의 존재 여부는 유학생들의 삶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까? 탈이나 키비스토가 지적하듯 대학 생활에 중요한 지지 네트워크로 작동할 수 있을 것인지, 아니면 동족 친구 집단끼리 주로 함께 어울리게 되어 사교활동의 폭이 좁아져서 유학생에게 오히려 좋지 않은 결과를 가져준다는 지적(Zhang and Brunton 2007; Wu and Hammond 2011: 425 재인용)¹⁾이 맞는지 주목하여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

Ⅲ. 연구 방법과 연구 맥락

본 연구는 동남아 출신 학부생, 학부 교환학생, 대학원생 14명을 대상으로 한 심층면접 자료에 주로 기반한다.²⁾ 연구자는 연구 수행 당시 A 대학에서 재직하고 있었으며, 외국인 유학생이 다수를 차지하는 강의도 맡은 경험이 있었다. 응답자의 모집 과정에서 외국인

1) 중국인 유학생의 한국 학생과의 교우 관계를 다룬 선행 연구를 살펴보면, 다수의 중국 유학생들이 “한국인과는 피상적이고 제한적인 접촉만 갖고 중국인 유학생들끼리 강력한 지지체제를 형성하는 [민족의] ‘섬(에서 사는) 생활’”을 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임수진, 한규석, 2009; 전재은, 장나영, 2012: 310).

2) 본 연구에서는 외국인 유학생의 범위가 계열별, 과정별로 다양하다는 점에도 주목하였다. 현재 외국인 유학생의 전공은 인문 사회 계열부터 이공계열까지 그 분야가 매우 다양하며, 학생의 범위 또한 학부생에서 대학원 석박사 과정생까지 넓은 스펙트럼을 형성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였다.

유학생을 담당하는 교직원과 외국인 기숙사의 사감 등과도 비공식적 인터뷰도 수행하였고, 외국인 유학생을 위한 행사에도 참가하면서 외국인 유학생과 지속적인 관계를 유지해 나갔다.

대학원생의 경우 영어로 모든 학위 과정이 진행되는 국제대학원이나 국제경영학 전공 학생뿐만 아니라 한국어만 진행되는 인문계 과정과 이공계열의 학생도 포함되었다. 학부 유학생의 경우 해당 학과의 한국학생과 같은 조건에서 공부를 하고 있었다. 학부 교환학생의 경우는 1과목 정도의 기초 한국어 과목을 제외한 나머지 과목은 영어로 진행되는 강좌를 수강하고 있었다.³⁾

심층면접은 교육이주경험의 기존 연구에서 주로 부각된 분석범주에 근거하여 맥락적이고 심층적인 이해를 돕기 위하여 실시되었다. 심층면접은 2010년 10월부터 12월말까지 세 달 동안 개별적으로 접촉하여 수행하였다. 이를 위해서 A대학의 기숙사의 허락을 얻어 기숙사에 거주하는 외국인 유학생 모두에게 연구 참여 안내문을 배부하고, 이에 응한 학생들이 우선적으로 고려되었다. 뿐만 아니라 연구 참여자의 학위 과정 (학부 및 대학원), 출신국가와 전공 계열(인문계열과 이공계열)을 모두 최대한 다양하게 포함될 수 있도록 최대 편차법(Maximum variation method)과 연구참여자의 소개를 받는 눈덩이 표집법(snowballing)도 함께 이용하였다(Creswell 2007). 그렇지만, A대학의 동남아시아 출신 유학생들이 모든 학과에 재학하고

3) 한국의 주요 대학과 마찬가지로 A대학은 다수의 영어강좌를 운영하고 있었다. A대학은 전체 전공강좌 중 영어 강좌의 비율이 2010년 기준 18.2%(1,564개 중 285개 강좌)로, 이는 2008년의 12.2%, 2009년의 14.5%에서 크게 늘어난 수치였다(A 대학 2011 대학자체 평가 결과보고서: 47). 이와 같은 영어강좌의 비율 증가는 대학의 세계화 추구 경향을 잘 보여준다. 그렇지만 여전히 외국인 교원의 수가 적어 대부분의 영어강좌가 한국인 교원에 의해 운영되고 있었고(A 대학 2011 대학자체 평가 결과보고서: 39), 영어강좌가 전체의 20%에 육박하기는 하지만 국제대학원이나 International MBA 석사과정 등 일부 대학원 과정의 경우 모든 수업이나 대부분의 수업이 영어강좌로 운영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영어강좌의 비중이 학위 과정 및 전공에 따라 비슷한 비율을 차지하지는 않는다.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유학생들의 일반적인 전공 선택 및 학위 과정 선택의 경향을 반영한다고 볼 수 있다.

면담과정은 연구에 대한 개략적인 안내와 설명, 기초적인 인적사항에 대한 질문서 작성, 연구 참여 동의서의 작성 이후 약 1시간 동안 진행되었고, 모든 인터뷰 내용은 연구대상자들의 동의를 얻어 녹음되었다. 면접장소는 A대학의 캠퍼스 안의 연구실 혹은 커피전문점을 학생들이 선택하도록 한 후 선택한 장소에서 수행되었다. 면접한 녹음 내용은 전사되었고, 전사 내용은 3차례에 걸쳐 한국인 연구자와 2인의 한국인 연구조교, 2인의 영어 원어민 연구조교가 직접 녹음 내용과 재확인하였다. 분석단계에서는 전사 내용을 연구자가 여러 차례에 걸쳐 전사한 내용을 숙독하고, 분석하였다.

이 연구에 쓰인 심층면접은 한국어 또는 영어로 진행되었다. 심층면접에 들어가기 전 연구 소개 시간에 연구참여자가 편안하게 생각하는 언어를 선택하도록 하였다. 결과적으로 연구참여자 중 2명은 한국어로 심층면접을 하였고, 일부 연구 참여자는 한국어와 영어를 혼용하여 인터뷰에 참여하였으며, 다른 모든 참여자는 영어로 심층면접을 하였다. 연구대상자들의 국적과 한국체류기간 등에서는 차이가 존재하기 때문에 외국인 유학생들의 한국어 구사능력에 있어 편차가 존재한다. 뿐만 아니라 영어 구사능력에서도 편차가 존재한다. 싱가포르와 필리핀과 같이 동남아시아내의 영어권 국가에서 유학 온 학생들은 상대적으로 유창한 영어를 구사하였고, 다른 국가 출신의 경우 영어 구사력의 개인적인 편차가 심하였다. 면접 시간 중 참여자가 원한다면 부분적으로 한국어와 영어를 섞어서 본인의 의사를 편하게 표현할 수 있도록 하였다. 연구결과 분석은 연구자가 인터뷰 내용을 직접 분석하고, 논문에서 직접 인용된 내용이 영어인 경우 연구자가 직접 한국어로 번역하였음을 밝힌다.

<표 1> 연구참여자의 특성

가명	성별	나이	출신국가	전공	과정	한국 체류 기간	비고
Alice	여	22	동티모르	컴퓨터공학	학부	2년6개월	한국정부장학생; 6개월 인도네시아 거주 경험
Brenda	여	22	동티모르	컴퓨터공학	학부	2년6개월	한국정부장학생
Chakrii	남	19	태국	경제학	학부	1년10개월	한국정부장학생
Diana	여	22	싱가포르	정치학, 사회학	학부	4개월	교환학생
Edwin	남	26	필리핀	국제대학원	석사	1년4개월	한국의 민간재단 전액장학생; 중국, 싱가포르 1년씩 거주 경험
Farrell	남	21	필리핀	경영학	학부	4개월	교환학생
Giang	여	34	베트남	국제대학원	석사	1년3개월	A대학 장학생; 싱가포르 3개월 체류경험
Harold	남	20	필리핀	경영학	학부	4개월	교환학생
Imelda	여	18	필리핀	경영학	학부	4개월	교환학생
Jorani	여	27	캄보디아	재정학	석사	2년	한국 공기업 전액 장학생
Kosal	남	28	캄보디아	국제대학원	석사	2년	A대학 전액 장학생
Maly	여	31	캄보디아	수학	석사	2년2개월	A대학 전액 장학생
Ly	여	27	베트남	국문학	석사	2년8개월	한국의 민간재단 전액 장학생
Nhat	남	24	베트남	MBA	석사	10개월	A대학 75% 장학금

학부 교환 학생을 제외한 동남아시아 출신 유학생들의 경우 연구 대상자인 거의 모든 학생들은 한국 정부, A 대학교 혹은 한국의 민

간 및 공립 기관이나 재단에서 등록금 전액 혹은 등록금 및 생활비의 일부를 보조 받는 장학생이다. 대개 본국에서 고등학교나 대학에 재학할 때 우수한 학업 성적을 거두었고, 본국에서 장학생 선발 시험이나 추천 과정을 거쳐 유학을 오게 되었다. 이와 같은 장학생 신분의 유학생들은 자비 유학생의 경우와 구별된다. 지방 대학의 경우 자비 유학생이 대다수를 차지하며(이민경 2012), 서울의 명문 사립 대학의 경우 국제화 지수를 끌어올리기 위해 자비 유학생의 입학에 최근 쉽게 바꾸는 경향을 보인다는 최근 연구(박소진 2013)를 고려할 때 본 연구의 참여자는 엘리트적 특성을 보일 가능성도 있음을 미리 밝힌다.

IV. 학업 경험과 그 어려움

1. “여기에서는 모두가 바빠요”: 학업 분위기의 영향

서울 상위권 대학 중 한 곳인 A대학의 일반적인 학업 분위기는 어퍼하고 외국인 유학생들은 이에 대해서 어떻게 느끼면서 학업을 수행할까? 심리학적 접근의 기존 연구에서는 학업의 어려움을 주로 언어적 미숙함(Zhang and Mi 2010)이나 현지 문화에 대한 적응 부족에 기인하는 개인적인 수준의 문제로 환원한다(Myles and Cheng 2003; Sherry et al. 2010; 박은미 외 2010). 그러나, 최근에는 이를 넘어 제도적인 수준의 분석을 시도하는 연구도 눈에 띈다. 서울의 유명 대학과 지방 대학 유학생의 학업 경험을 비교 탐색한 박소진(2013: 220)의 연구를 살펴보면, 서울 유명 대학의 경우 학업 어려움과 그로 인한 스트레스가 많이 언급된 반면, 지방 대학의 경우 “외국 인임을 고려해주는” 제도와 분위기 때문에 학업 스트레스에 대한

언급이 적음을 지적하였다.

서울 유명 사립대학 중 한 곳인 A 대학의 유학생의 실제 경험에 대한 분석 결과, 유학 대학의 학업 환경, 특히 해당 대학교의 학업분위기로 인한 영향과 어려움도 상당히 큰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 참여한 유학생들 대부분이 본국 엘리트 출신의 장학생들로 구성되어 있기에 유학생 본인이 지니고 있는 강한 학구열과 더불어 유학 대상 대학교의 경쟁적인 학업 분위기는 이들 유학생의 학업 환경을 구성하는 데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 것으로 사료된다.

학부생과 대학원생 응답자 모두 A대학의 학업 분위기에 대해 “모든 학생들이 열심히 공부하는 경쟁적인 분위기”임을 피력하였다. 특히 수업에 5차례 빠지게 되면 자동으로 F학점을 부여하는 엄격한 학사 관리 제도를 비롯한 A대학의 학업 중심적인 환경에 대해 언급하여 A대학의 학업 중심 분위기로 인한 스트레스를 언급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제도는 재학생들이 더욱 열심히 공부하도록 독려하는 기제가 된다. 하지만 유학생들이 학업에 대한 열중하는 분위기 속에 그들의 학업에 몰입하는 이유가 엄격한 학사 관리 때문만은 아니다.

먼저 학부생의 경험을 살펴보자. 동티모르 출신 학부 유학생 Alice는 A 대학의 엄격함은 “특히 외국인 학생에게는 더 해요, 왜냐하면 한국인 학생들은 고등학교 때 이 시스템을 경험해서 이미 익숙하지만, 외국 학생은 그렇지 않잖아요”라고 말한다. 경쟁적인 분위기는 궁극적으로 학업 성취에 도움이 될 수는 있지만, 그 과정은 고단하게 한다. 한국 대학생들의 일반적인 학점이나 학업 경쟁 분위기는 외국인 유학생에게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그 경험에 대해 Brenda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한국인 학생들 사이에서도 그렇지만, 외국인도 마찬가지예요. 그걸 배우고, 우리도 경쟁을 하죠. 다른 모든 학생들은 좋은 학점을

받은 것처럼 느끼고, 오 마이 갓(Oh my god), 내가 이 수업에서 멍청한 자료구나 하고 느끼죠. ... 나도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엄마, 나 돌아가고 싶어. 엄마 나 돌아가고 싶어”라고 생각하지만, 이들 학생들을 볼 때, 그들 역시도 스트레스를 받는 것 같아서. 이게 동기부여가 되죠. ... 이를 통해서 배우죠.”(Brenda, 동티모르, 학부)

이와 같은 학업 분위기로 인한 압박은 서울의 주요 명문대학을 대상으로 한 다른 연구가 지적하는 바와도 유사하다(박소진 2013; 전재은, 장나영 2012). 이러한 학업 분위기는 학위를 받아야 하는 부담이 없어 상대적으로 자유롭게 학업을 영위할 것으로 여겨지는 학부 과정 교환학생들도 공유하고 있었다. 필리핀의 명문 대학 중 한 곳에서 교환학생으로 온 Harold에게 A대학에서의 한국 학생들의 공부 중심의 분위기는 “공부를 더 열심히 하도록 압력을 받는 것” 같아 보이며, 의아하게 생각할 정도로 받아들여진다. 이러한 학업 분위기는 많은 유학생들에게 공통적으로 들을 수 있는 이야기였다. 심지어는 기숙사에 같이 살고 있는 학생들에게서 한국어 관련 궁금한 점을 질문하고 싶어도, 한국인 룸메이트는 “항상 바쁘고 도서관에 가기 때문에 물을 수가” 없다(Brenda, 학부, 동티모르).

경쟁적인 학업 환경은 위의 Brenda를 비롯한 많은 학생들이 공통적으로 피력한 것으로 이들이 말한 것처럼 학업 관련 스트레스의 원천이 되기도 하지만, 긍정적인 자세로 전환하는 계기가 되기도 한다. 경쟁적인 환경에서 적응하며 공부하는 것을 통해서 많은 유학생들은 자기 자신에 대한 성찰을 통해 한국 대학에서의 공부 환경에 주체적으로 적응하는 변화의 전기를 맞기도 하기 때문이다. Brenda는 한국에 온 다음에는 “공부에 집중하지 않으면 실패한다는 것을 인식하게 되고, 다른 누구도 내가 실패하는 지 아닌지 관심을 가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 나 스스로 집중해야 함을 자각”했으며, 본

인은 “완전히 달라졌다”라고 말한다.

2. “‘운동과 건강’ 과목은 스포츠 활동이 아니에요”: 영어와 한국어 수업 경험

언어(한국어와 영어)는 유학생들이 학업 중 경험하는 가장 큰 어려움 중 하나이다(Myles and Cheng 2003; Sherry et al. 2010; Zhang and Mi 2010). 본 절에서는 수업관련 학습 언어가 유학생들의 수업 경험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지 살펴보도록 한다. 특히 언어 문제는 A대학의 동남아 출신 유학생의 학업 어려움을 파악하는 데 있어서 핵심적이다. 학부 유학생의 경우 한국 학생들이 수강하는 일반 강의에 편입된다는 점을 염두에 볼 때, 비영어권 국가인 동남아시아 출신 유학생은 최소한 한국어나 영어 둘 중 하나, 혹은 두 언어 모두에 유창해야만 하는 부담이 존재한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연구 결과 영어 강좌와 한국어 강좌간의 학습 경험은 학부와 대학원간의 일반적인 차이와 대학원 프로그램 사이의 차이점도 동시에 존재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먼저 학부 수업 경험을 살펴보자. A대학의 학부 과정의 경우 일부 사립 명문 대학처럼 영어로만 강의가 진행되는 학사 과정 프로그램은 없으며, 일부 지방 대학처럼 외국인의 언어적 편의를 많이 봐주는 프로그램도 없다(박소진 2013: 220). 따라서 동남아 유학생들은 다른 한국인 학생과 유사한 환경에서 학업을 진행하여야 한다. 이런 상황에서 학부 재학 중인 유학생들의 경우 다른 연구들이 지적하는 것처럼(전재은, 장나영 2012), 한국어 능력이나 한국어 습득의 어려움을 토로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이러한 학업의 어려움에 처할 때 강의 담당 교수 또는 강사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얻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뿐만 아니라, 일반적으로 언어가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생

각되는 과목도 유학생에게는 쉽지 않은 과목이 될 수 있음이 발견되었다. 예를 들어, 체육 관련 과목도 유학생에게는 난감한 과목이 될 수 있었다. 예를 들어, 태국 출신 학부생 Chakrii의 경험에 따르면

Chakrii : 올해 1학기 있었을 때에는 한국어 강의 2학점 짜리 들어
갔는데요 그때 힘들었어요.

연구자 : 어떤 과목이었어요?

Chakrii : ‘운동과 건강’.

연구자: 스포츠 하는 거예요?

Chakrii : 스포츠 하는 거 그렇게 생각 했거든요 ... 그런데 교수님
이 [한국어로] 말씀 하시고 필기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험 볼 때도 ... 객관식이 아니고 주관식이었어요.

대학원의 경우 영어로 모든 과정이 진행되는 과정과 그렇지 않은 과정간의 학업 경험에는 뚜렷한 차이가 존재했다. 학위 과정의 수업 전체가 영어로 진행되는 국제대학원의 경우, 영어 능력이 문제가 되곤 한다. 영어권 국가와는 달리, 한국 대학에서는 영어 습득이나 학업 영어 실력 향상을 위해 제공되는 프로그램은 거의 없다 보니, 동남아시아의 비영어권 국가 출신의 경우 영어 관련 어려움을 개인적으로 극복해야만 하는 문제가 되었다. 이는 마치 홍콩 대학에서 국제화에 중요함을 인식하고 영어 수업 제공을 추진하나, 아시아 출신 유학생들이 홍콩의 영어 강의와 교습 환경에 만족하지 못한다는 연구 결과와도 일맥상통한다(Cheong et al. 2009; Trent 2012: 53). 캄보디아 출신 유학생 Kosal은 학업 경험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

“때때로 나는 내 영어 실력이 충분하지 않다고 느껴요 읽기 과제를 읽는 것은 괜찮지만, 그걸 수업시간에 얘기하는 것은 문제이죠 유럽 학생이나 영어 원어민 학생들은 이런 문제가 없겠죠 ... 언어의 어려움이 나를 숨막히게 해요 ... 주말 내내 어디도 안 나가고 수업 관련 글을 읽지만, 그래요.”(Kosal, 캄보디아, 남)

위 상황과 반대되는 아이러니한 경우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 Nhat이 재학하고 있는 국제(International) MBA 과정은 A대학의 국제대학원처럼 대부분의 수업이 영어로 진행된다. 이 과정에 재학하는 학생은 50명이 넘지만 그 중 외국인 학생은 단 6명밖에 없다. 그래도 80% 이상의 강좌는 영어 강좌로 이루어지며 영어 강좌의 경우 때로는 40명 이상의 학생이 수강 신청을 하는 등 영어 강좌의 인기가 더 많다. 그러나 석사를 최종학위로 하는 MBA 프로그램의 경우 방학 중 인턴쉽이나 학위 과정 후에 한국에서 직장 경험을 얻기를 원하기 때문에 학부의 유학생들의 경험과 대조적으로 한국어를 간절히 더 배우길 원하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벌어진다. 대학 안에서는 영어로 수업을 하더라도 한국에서의 장단기 취업의 기회를 고려한다면 한국어가 장래 취업에 필요한 상황이다. 예를 들어 Nhat의 경우, 본인의 한국어가 “한국에서 일하기에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학위 과정에는 “필수적인 것은” 아니지만, 한국어를 배우고 싶어 한다.

동남아시아의 영어권 국가 출신의 경우 영어 구사 능력이 하나의 문화 자본으로 자리잡아 한국 사회에서 영어권 출신 외국인이 누리 는 이점과 편안함을 누린다(전재은, 장나영 2012). A대학에서 운영하는 교환학생 프로그램 중 동남아시아 출신은 모두 영어권인 싱가포르와 필리핀의 주요 대학에서 파견 온 학생들이다. 점점 더 그 수가 늘어나고 있는 필리핀 출신 대학원생들도 교환학생들과 비슷한 경험을 공유했다. 예를 들어, 싱가포르 출신의 4학년 Diana(정치학 및 사회학, 교환학생)는 한국에서의 학업과 학교 생활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그 주된 이유는 영어를 모국어로 사용하는 국가 출신이라서 영어가 편한데, 한국 대학 맥락에서는 이러한 점이 더욱 증폭되어 이점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4과목의 일반 과목을 수강

하고 있는 Diana의 강의는 모두 영어 강좌이다. 그가 현재 수강하는 과목의 경우 수강생 중 3-4명 정도 만이 외국인 학생이고 나머지 다수는 한국인 학생이다. 이러한 맥락에서의 한국에서의 학부 수업 따라가기에 대해서 Diana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어렵지 않아요. 아마도 영어는 내게 제1언어라서 내게는 이점이 있죠. 그러나 여기서 (영어는) 제1언어는 아니라서 과제물의 양은 그것 때문에 적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은 약간 불공평한 어드밴티지인 면이 있죠.” (Diana, 싱가포르, 학부 교환학생)

급팽창적으로 국제화하고 있는 현재의 한국 대학의 맥락에서 이루어지는 영어 강의는 아이러니하게도 영어권 국가 출신이 영어 강의를 듣는 데에 때로는 현실적인 어려움을 주기도 한다. 이는 영어 강좌의 실제 운영과 관련된 문제점 때문이다. A 대학에서는 20%에 가까운 강좌가 영어로 진행되지만, 현실적으로 수강생의 다수가 한국인이다 보니, 일부 강좌는 한국어를 부분적으로 사용하는 경우도 있다. 상당수의 강좌는 영어 구사력이 유창하지 않은 한국인 학생도 많이 수강한다. 한국 대학의 이런 현실을 고려하여 일부 수업에서는 수강하는 한국인 학생들의 편의를 위해 부분적으로 한국어를 사용할 기회를 제공하는 등 영어 수업이 편의적으로 변형되어 운영되곤 한다. 이런 상황에서 “외국인 수강생의 수가 적은 경우에는 교수님은 한국어로 한 동안 얘기하고 통역을 해주지 않은 경우”나 “영어 수업이지만 교재가 한국어인 경우” 등은 외국인 학생들은 영어 수업에서 소외되는 경험을 할 수 밖에 없다.

“내가 들었던 수업 중 하나는 교수님이 언어 구사력에 따라 영어나 한국어 중 하나를 선택해서 말해도 된다고 허용한 경우가 있었어요. 이해할 만하게도 많은 한국인 학생들은 결국 한국어로 얘기를 하게 되죠. ... 처음에는 모든 사람들이 영어를 해서 분위기가

꽤 생동적이었는데, 한 학생이 한국어로 대답해도 되냐고 한 후 15분간 한국어 토론시간이 되니까, 나나 다른 학생들은 무슨 일이 진행되고 있는지 모른 채 앉아있게 되죠 ... 영어만 쓰도록 하는 원칙에 융통성을 두면 결국은 한국어 사용 수업이 되어 버릴 것 같아요.”(Diana, 싱가포르, 학부 교환학생)

위와 같이 한국어를 부분적으로 사용하는 영어강좌에 대한 지적은 다른 학생들로부터도 접할 수 있었다. 교수의 경우 영어로 강의를 하지만, 한국 학생이 필요 시 한국어로 질문을 가능하게 하는 강좌의 경우가 특히 그렇다. 즉, 영어수업 수강이 수강 학생들의 영어 능력과 무관하게 한국 학생 및 유학생 모두가 수강 신청이 가능하므로 실질적으로는 일부 영어강의는 전적으로 영어로만 수업이 이루어질 수 없는 상황들이 발생하고, 그로 인해 유학생들이 영어 수업 과목에서조차 수업에서 소외되거나 따라갈 수 없게 되는 예상치 못한 어려움에 부딪히기도 한다.

3. “중국학생들은 공부하기도 전에 숙제를 이미 끝냈죠”: 영어 능력, 친구 사귀기, 그리고 민족 커뮤니티

서울의 다른 대학에 재학하는 중국인 유학생 사례에서도 볼 수 있듯이(박소진 2013; 박은미 외 2010; 전재은, 장나영 2012), 동남아시아 출신 유학생들은 한국 대학에서 한국인 친구 사귀기는 대개의 경우 그리 쉽지 않음을 토로하였다. 유학생에게 한국에서 사귀는 친구는 친교의 대상일 뿐만 아니라, 학업을 지속해 나가는 데 있어서 직간접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대상으로서 중요한 존재이다(Sawir et al. 2008). 유학 초기에 특히 친구가 거의 없이 외로운 유학 생활을 한 경험들을 공유하며, 거의 모든 연구 대상자들은 한국인 친구를 사귀기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 본 경험이 있다.

비영어권 동남아시아 출신 유학생은 언어적으로 소수자일 뿐만 아니라 동족 유학생의 수가 적은 민족적 소수자로서 겪는 어려움이 많은 것이 현실이다. 이에 한국인들의 서구인에 대한 선호, 동남아시아 출신 유학생에 대한 간접적인 차별 및 비선호까지 더해져 어려움이 배가 된다. 연구대상자들은 학교 안에서는 직접적인 차별의 경험이 없었다고 표현하지만, 간접적인 차별로도 해석할 수 있는 한국 학생들의 “비선호”의 대상이 되는 경험을 흔히 공유하고 있었다. 이는 서울 소재 대학의 중국 유학생 경험과도 유사하다(박소진 2013; 박은미 외 2010; 전재은, 장나영 2012). 한국어를 전공하는 베트남 출신 유학생 Ly의 이야기는 한국인 학생들이 지니고 있는 동남아시아 유학생들에 대한 비선호 혹은 무관심을 드러낸다.

“한국 학생 좀 여러 번 사귀었는데, 그런데 대부분[의] ... 한국 학생 생각에는 ... 외국 친구랑 사귀고 싶을 때 항상 서양 쪽 친구들만 사귀고 싶대요. ... 아시아 쪽 [사람 중]에는 ... 일본 학생에게만 많이 관심이 있잖아요. 다른 나라 저희 베트남이나 ... 캄보디아에 대해서는 ... 관심이 없었어요.”(Ly, 학부, 베트남)

동티모르에서 유학 온 학부생 Brenda의 경우 컴퓨터 공학을 전공하고 있는데, 한국 유학을 오기 전 한국 드라마나 음악이 유행이라서 본인은 한국에 대한 많은 호감과 기대를 가지고 유학을 왔다. “한국 대학에 오면 친구를 많이 사귀고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 같다는 막연한 기대도 있었다. 그렇지만, 남학생이 대다수인 학과에서 공부하는 여학생으로서 그녀의 경험은 “한국인 학생들은 낯을 가리는 것(shy)처럼 보이기도 하고, 실제 그런 것 같기도 하였다”고 말하지만, 이유야 어떻든 “그들은 내 친구가 되려고 하지 않아서 친구 사귀기가 어려웠다”(Brenda, 학부, 동티모르)고 언급하였다. 같은 과의 학생들 중에서 “[한국]말을 못하니까 별로 친하게 지내고 싶어하지

않는” 것 같다는 인상을 주는 학생을 접하면서, 외국 학생들을 무시하는 차별을 경험한다. 이런 경험에 처하면서도, 직접 보기에라도 다른 학생들이 “바쁘니까”(Brenda) 혹은 “그냥 이해하려고, 긍정적으로 생각하려고 노력”(Chakrii) 하기도 하고, “문화적인 이유”(Jorani) 일 것이라고 치부하기도 한다.

이에 반해, 동남아시아 내 영어권 국가인 싱가포르와 필리핀 출신 유학생의 경험은 매우 대조적이다. 이는 한국인의 영어 선호가 외국인 유학생을 구별 짓고 위계화 시키면서 동남아의 영어권 국가 출신은 상대적으로 우위를 점하기 때문이다. 동남아시아 비영어권 국가 출신 유학생들이 대개 친구의 부재로 인해 학업 측면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도움을 받기가 어려웠던 것과는 대조적으로, 싱가포르 출신의 Diana는 수업을 통하여서 한국인 친구를 많이, 가깝게 사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도움 얻기도 편하다. 그에 따르면:

“여기에는 친구가 많죠. ... 한국인 학생들은 ... 내가 친구가 되기를 원하는 걸 파악하면 그들은 정말 친절하게 잘 해주죠. ... 무언가 필요한 것이 있으면 **내가 필요한 것을 얻을 때까지 도와주세요**”(Diana, 싱가포르, 학부 교환학생; 강조는 필자)

필리핀 출신 유학생도 마찬가지이다. Harold의 경우도 같은 수업을 듣는 한국인 학생과 공동 과제를 하면서 한국인 친구와 사귀는데 별 어려움이 없었고, A대학에는 다수의 필리핀 출신 교환학생과 대학원생이 있어서, 자국 출신 유학생이 소수에 불과한 다른 대부분의 동남아시아 국가 출신 비영어권 유학생이 겪는 외로움이나 도움을 받지 못하는 어려움을 겪는 일은 별로 없다.

흥미로운 점은 언어적 소수자라도 계열과 학위 과정에 따라 친구 사귀기와 도움 얻기의 난이도가 달라질 수 있는데, 이공계 대학원생이 그런 경우이다. 학부생이나 문과계 대학원생들이 학업과 친구 사

귀기와 도움 얻기에 어려움에 처한 것과 달리 이공계 대학원생들은 그 어려움의 정도가 상당히 반감된다. 이는 대개의 이공계열 대학원 과정은 담당 교수의 산하 연구실의 지도학생들이 같은 연구 공간을 공유하는 시스템으로 운영된다는 점은 소수 국가 출신 유학생의 핸디캡을 극복할 수 있는 제도적 밑받침이나 지지 집단화(support group)되기 때문이라고 추정된다. 동남아시아의 비영어권 국가 출신 대학원생들도 상대적으로 쉽게 같은 교수의 제자 네트워크에 편입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관찰은 수업 없이 본인의 연구를 바탕으로 박사학위를 취득하는 호주 대학의 경우, 수업 없는 박사 과정생들이 외로움을 더 많이 느끼며 사회연결망이 결여되기 쉽다는 연구 보고(Sawir et al. 2008: 165)를 참고할 때, 이공계 대학원생이 갖는 제도적인 장점으로 파악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캄보디아 출신의 수학과 석사과정생 Maly의 경우가 그렇다. 공동 연구실에 매일 출근을 하는 그는 이러한 이공계식 시스템하의 공동연구실에서 공부하는 경험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

“우리는 오피스를 같이 쓰면서 지내니까 공부하기가 편해요 ... 우리가 모르는 것을 다른 학생들에게 물어볼 수도 있고 ... 논의하기도 쉽죠.”(Maly, 캄보디아, 석사, 수학과)

한국인 친구 얻기가 실질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동족 유학생 커뮤니티는 학업에 대한 중요한 지지 집단으로 역할 하는 것으로 보인다. 다시 말해, 같은 나라 출신 유학생들끼리만 주로 어울리게 되면 친교 활동의 폭이 좁아져서(Zhang and Brunton 2007; Wu and Hammond 2011: 425 재인용) “민족의 섬”으로 활동하는 것으로 보인다는 한국 내 중국인 유학생에 대한 지적(임춘희 2009; 전재은, 장나영 2012)과는 달리, A 대학의 맥락에서 언어적 소수자들은 동족 유학생 커뮤니티는 긍정적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같은

나라 출신 유학생의 수가 매우 적은 비영어권 동남아시아 출신 유학생은 다른 나라 출신 유학생에 비해서 홀로서기를 적극적으로 해야만 대학생활을 성공적으로 영위할 수 있다는 사실을 빨리 깨닫고 이에 맞게 대처하려 노력한다. 그래서 태국 출신 Chakrii는 “열심히 공부하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친구 관계를 맺고, 캄보디아 출신 Jorani의 경우 친할 수 있는 다른 국가 출신 유학생들과 관계를 맺는다.

동족 커뮤니티의 존재 혹은 부재 그리고 학업에의 영향은 한국 대학의 맥락에서 증폭되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캄보디아 출신 유학생 Jorani의 경험에서 잘 드러난다. Jorani은 한국인 친구가 한 명도 없다. 같은 기숙사 방을 쓰는 베트남 친구 혹은 같은 학과의 다른 소수 국가 출신의 친구만이 있을 뿐이다. 어려울 때 주로 어떤 친구와 도움을 주고받는지 물었을 때, 그는 이렇게 말했다.

“중국 친구와는 만나서 얘기하는 정도예요. 중국 애들은 공부에 관해서는 비밀을 유지하고 자기 친구들끼리만 공유해요. 질문을 하거나 교수님이 숙제를 내면 이들은 [다른 나라 출신들과] 서로 공유하지 않아요. 알다시피, 중국인들은 여기서 [유학생 중]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니까, 그들은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어요. **그들은 공부하기도 전에 숙제를 이미 끝냈죠** 첫 학기 때 중국 학생들이 왜 높은 점수를 받을까 의아해 했는데, 하루는 교재를 빌릴 수 있었어요. 그 교재는 오래된 것이고, 숙제는 늘 같은 것이었죠. 이런 이유 때문에 그들은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죠.”(캄보디아, Jorani; 강조는 필자)

Jorani의 얘기가 암시하듯, 민족 커뮤니티의 효과는 과목별 숙제의 족보가 여전히 통하는 한국 대학의 맥락에서 증폭된다. 뿐만 아니라 중국인 유학생의 예에서 볼 수 있듯 유학생의 동족 커뮤니티의 존재 또는 부재는 학업 성과와도 연결된다. 필리핀이나 베트남 유학

생 커뮤니티의 경우 그 크기가 어느 정도 규모가 되고 서로 간에 도움을 얻으면서 한국에서의 학교생활 적응이나 교우 관계 확장의 디딤돌로 삼고 있음을 관찰 할 수 있었다. 다시 말해, 적어도 이 두 집단의 경우 ‘민족의 섬’이라기보다는 대학 맥락에서의 ‘민족의 패러독스’로 작동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V. 학업 어려움과 도움 얻기 어려움에 대한 대처전략

지금까지 동남아시아 출신 유학생들이 대학에서 학위 과정 중 학업과 학교 친구 사귀기의 어려움은 특히 비영어권 동남아시아 출신 유학생이나 같은 국가 출신 유학생이 적은 국가 출신 유학생들에게 특히 가중됨을 파악할 수 있었다. 그렇다면 동남아시아 유학생들은 이러한 어려움을 어떻게 대처할까? 본 절에서는 유학생 규모가 작은 국가이면서 비영어권인 동남아시아 유학생의 사례를 중심으로 이들의 학업과 친구 사귀기 어려움에 대한 대처 방식의 유형을 언어(한국어와 영어)의 어려움, 친구 사귀기의 어려움과 민족 커뮤니티 부재 등 세가지 영역을 중심으로 살펴본다.

1. “한국어가 유창하지 않으면, 컴퓨터공학은 어려워요”: 대안으로서 영어 강의 수강

본 연구에 참여한 모든 유학생은 A대학에서 개설한 영어 강의를 수강하고 있었는데, 유학생들에게 있어서 영어 강의의 수강은 개설된 과목에 대한 학문의 본연적인 연마로서의 의미 뿐만 아니라, 특히 한국어 강의를 따라가기 힘든 데에 따른 개인적인 수준과 집단적인 수준의 대처 전략으로 이해할 수 있다. 먼저, 왜 대안으로서의

영어 강의 수강을 하게 되는 지를 자세히 살펴보고, 다음으로 인문 계열과 이공 계열의 차이점을 살펴보자.

첫째, 유학생이 겪는 학업의 어려움에 대처하는 전략으로 ‘영어 강의 수강’을 채택하는 이유는 한국 대학에서의 영어 강의와 관련된 한국의 ‘관행’과 주된 관련이 있다. 한국의 많은 다른 대학에서 그런 것처럼 A 대학에서는 영어 강좌의 경우는 절대 평가로 이루어지고 대개 나온 학점을 받을 기회가 더 많다. 한국어로 이루어지는 강의의 경우 한국인 동급생과의 상대 평가로 성적을 부여 받기 때문에, 한국어 구사 능력이 한국인 수준과 동등한 수준이 아니라면 한국인 학생과의 경쟁에서 뒤쳐질 수 밖에 없다. 따라서, 유학을 처음 시작할 때 먼저 유학 온 선배 유학생으로부터 듣는 학습 조언은 “영어 강의를 수강하라”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원어민 수준의 영어를 구사하지 못하는 동남아시아 유학생에게도 영어 강의 수강은 매력적인 것이 된다. 한국어의 구사 실력이 상당하여 심층 면접을 한국어로 원활히 진행 할 수 있었던 태국인 유학생 Chakrii의 경우도 그런 이유에서 영어 과목을 선호한다.

“한국어 강의 들으면 상대 평가라서 한국 사람만큼 쓸 수 없잖아요 답안지 쓸 때에는. 영어 강의 라고 하면 ... 편하게 쓸 수 있고 어떤 경우에는 한국[어] 수업 보다 더 잘 할 수 있는 경우가 있어서 학점 받기 쉽다고 생각해요.”(Chakrii, 태국, 학부)

영어강의가 선호되는 또 다른 이유는 교수로부터 관심을 받는 것이 상대적으로 쉽기 때문이기도 하다. 상대적으로 소수의 학생들이 수강하는 영어 강의는 교수들이 개별 수강 학생에게 보다 큰 관심을 두게 되므로 학습 면에서도 장점이 있을 뿐만 아니라 학습 외적으로도 교수-학생 관계가 보다 더 친밀할 수 있다는 점에서 대형 강좌에서 배려 받지 못하는 유학생에게 매력적이다. 이러한 이유는 대규모

강의 경험이 많은 학부 유학생들에게는 특히 중요한 이유로 지적되었다.

둘째, 이공계 유학생과 문과계 유학생 사이에는 영어 강의가 대처 방법이 되는 데에 차이가 있는데, 이는 한국 대학의 국제화의 정도가 같은 대학 안에서도 인문과 이공계열 별로 상이한 점을 반영한다. 이는 영어 강좌가 주로 문과 계열의 학과/과목을 중심으로 개설되어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표면적인 수준에서는 한국 대학별로 많은 수의 영어강좌가 개설되어있다고 볼 수 있을지 모르나, 문과 계열과 이공 계열간의 개설 과목 수의 차이는 크다. 컴퓨터 공학을 전공하는 학부생인 Alice의 경험은 이공계 유학생들이 상대적으로 더 크게 경험하게 되는 어려움을 잘 보여준다.

“한국어를 유창하게 하지 않으면, 컴퓨터공학은 정말, 정말, 정말 어려워요. 강의를 이해하기가 정말 어려워요.”(동티모르, Alice, 학부)

Alice와 동일한 전공을 하는 다른 유학생의 경우도 본인의 전공과 관련이 없지만, 학과에서 개설되지 않는 영어 과목을 수강하기 위해서 일부러 경영학 과목을 수강하기도 하였다. 이 두 학생은 전공을 경영학으로 전과를 하는 것까지 진지하게 고려할 정도였다.

셋째, 흥미로운 점은 영어 강의의 개설의 측면에서 국제화의 정도를 평가하자면, 이공계열이 인문계열에 비해 열악함에도 불구하고, 대학원 수준에서는 이공계열의 경우 학업과 대학 생활이 연구실 중심으로 운영되는 이공계 특유의 시스템이 유학생 개인의 언어적 제약에 따른 학업 어려움을 완화시켜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바로 앞 소절에서 살펴보았듯 학부생의 경우 문과생에 비해 이공계열 학생이 더 큰 어려움을 겪고 있던 것과 달리, 동일한 이공계열에서도 대학원생의 경우에는 학부생에 비해 언어로 인해 겪는 어려움이 그리

크지 않았다. 이는 대학원의 경우 개별 학과에 재학하고 있는 유학생의 수가 적다고 하더라도 학부와는 달리 소규모로 세미나 강좌가 주를 이루므로 보다 적극적으로 학생의 필요에 맞게 프로그램이 운영될 여지가 있다는 점 때문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약 30명 내외의 석박사 과정생이 재학하고 그 중 단 2명만이 외국인 유학생인 수학과에서 석사과정에 재학하고 있는 캄보디아 출신 Maly의 경험은 같은 나라 출신 학부생과는 대조를 이룬다. 심층 면접 과정에서 나타난 언어 실력에 있어서, Maly의 한국어 구사 능력은 이공계열의 학부생 보다 현저히 낮았지만, 그에게는 자신의 한국어 구사능력에 따른 학업에 지장이 크게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⁴⁾ 그에 따르면:

“일부 수업은 한국어로 진행되지만, 내가 듣는 모든 강좌는 영어로 진행돼요. 한 교수님이 외국인인 한 명이라도 수업을 들으면 담당 교수는 영어로 가르쳐야 한다고 했어요. 나는 한국어를 못하니까요.”(Maly, 캄보디아, 이공계 대학원)

뿐만 아니라, Maly의 경우는 같이 입학한 한국 학생과 지도교수와의 지도와 세미나도 1:1로 영어로 진행한다. 물론 많은 지도학생이 있는 교수라서 자주 1:1 세미나를 할 수는 없다. 이렇게 유학생이 아니라 교수나 학과가 변화하려는 시도가 A대학 전반에 걸친 것인지는 알 수 없으나, 유학생을 보다 적극적으로 유치하려는 대학의 변화를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2. “나는 유튜브의 강의를 따라가죠”: 비영어권 유학생의 생존 전략

많은 비영어권 동남아 출신 학부생의 경우가 그러하듯 한국어 구

4) 저자의 판단으로는 Maly의 영어능력은 본 연구에 참여한 다른 유학생과 비교해 볼 때 평균 이하로 생각되었다

사 수준도 낮고, 한국인 친구를 통해 도움 얻기도 어려운 경우라면 어떻게 대처할까? 첫 번째 유형은 어쩔 수 없이 개인적 수준에서 대처전략을 도모하는 것이다. 개인적 수준의 대처는 앞 절에서 살펴 보았듯, 대학 수준에서의 제도적 지원의 결여와 비영어권 동남아 학생에 대한 한국 학생들의 상대적 비호감과 무관심에 기인한 바가 크다. 아직 한국어가 많이 익숙하지 않은 Brenda의 경우, 한국어로 진행되는 강의는 따라가기 힘들었다. 특히나 교수가 한자어를 섞어서 사용하는 경우도 많아서, 한자어를 섞어 사용하는 강좌는 더욱 힘들다. 그래서 이런 강의를 들을 때, Brenda는 “마치 학교에 그냥 출석을 하러 온 것처럼 느끼고, 강의를 정말 이해할 수 없다”고 말한다. Brenda와 같은 경우의 학생들은 개인 수준에서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으로 대처한다.

개인 수준에서 혼자 해결하는 방식 중 두드러지게 관찰된 대처 방법은 유튜브(YouTube)를 비롯한 인터넷 미디어를 이용하는 것이었다. 유튜브는 한국어와 영어 뿐만 아니라 본인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자세히 설명되어있는 강좌를 찾을 수 있기 때문에 유용한 강의 참고서 역할을 한다. 예를 들어, 한국어 강의를 이해하기 힘들 때 어떻게 하냐는 질문에 대해 Brenda는 다음과 같이 대답했다.

Brenda: 그냥 혼자서 공부하지요. 인터넷이 도움이 되요. ... 네, 유튜브는 정말 도움이 되요.

연구자: 어떻게 유튜브를 활용하지요?

Brenda: ... 대수학(Calculus)과 같은 과목 혹은 영어, 디자인 서킷(Design Circuit)과 같은 것을 유튜브에서 찾을 수 있기 때문이죠. 마치 교수가 가르치는 것처럼 유튜브가 가르쳐요. 나는 유튜브의 강의를 따라가죠. 나는 거기서 배워요. (강조는 필자)

혼자서 해결하는 다른 방식은 주변과의 상호작용을 최소화하면서

본인의 학업에만 집중하는 유형이다. 비영어권 동남아 유학생 중에서는 가까운 한국인 친구가 거의 없는 유학생들이 드물지 않았다. 그런 경우에는 학업 외의 시간을 활용에 있어서 스스로 바쁜 스케줄을 만들어서 외로운 시간을 줄이려는 대처 전략을 채택하곤 한다. Giang의 경우가 그러하다. 그에 따르면:

“사실 나는 주말이 없어요. 주말에 바쁘길 원하기도 해요, 왜냐하면 슬프지 않기 위해서요 ... 여기에서 살면서는 특별한 활동은 없어요. 그래서 주말에는 공부하는 스케줄을 만들죠.” (Giang, 베트남, 석사, 국제대학원, 여)

Giang의 경우 한 학기에 2-3번 정도만 가깝게 지내는 베트남 친구들과 노래방에 가거나 식사를 같이 하는 정도만이 친구들과 ‘노는’ 일정의 전부다. 그런 그에게는 같은 기숙사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한국인 친구에게 구하는 도움은 최후의 선택에 해당한다. “다른 선택이 없으면” 어쩔 수 없이 “문을 두드”릴 수 밖에 없는 것이다.

3. “일본인 친구가 더 도움이 되요”: 타국 출신 외국 학생의 도움 받기

학업 관련 어려움의 또 다른 대처 방법은 자신과 비슷한 처지의 다른 외국인 유학생과 교체하고 도움을 구하는 것이다. A 대학의 경우 유학생 지원 프로그램을 최근부터 운영하고 있고, 학생 동아리 중 하나는 유학생들과 한국인 학생을 1:1로 연결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러한 공식적인 프로그램의 경우, 유학생들의 한국에서의 유학 초기 단계에 주로 발생하는 생활의 어려움을 해결하는 데에는 큰 도움이 된다. 예를 들어, Ly (베트남)는 핸드폰 회사에서 발송된 자동 메시지를 이해하지 못하고, 자동 메시지라 전화로 건 상대방에 물어볼 수도 없었을 때 학교 프로그램을 통해 연결된

한국인 친구를 통해 도움을 얻었다. 그렇지만, 한국인 학생을 외국인 유학생과 연결 시켜주는 공식 비공식 프로그램의 경우 초기 생활 관련 도움을 넘어서는 학업적인 도움을 얻는 경우는 드물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어쩔 수 없는 최후의 전략으로 이해할 수도 있는 방식이 두드러진다. 동남아 출신 유학생들이 한국인 친구 사귀기나 도움 얻기가 어려운 맥락에서 혼자서 개인적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영역, 특히 한국어 구사 수준의 향상과 유지와 같은 영역에서는 그 해결책을 자기와 비슷한 상황에 있는 다른 유학생에게서 구하는 유형이 두드러진다. 다른 유학생에게서 도움을 구하는 이유는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째, 한국어를 전공하는 베트남 학생 Ly의 경우처럼, 때로는 한국인 동료 학생들 보다 다른 외국인 유학생이 현실적으로 더 큰 도움이 되기도 하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한국어를 외국인의 입장에서,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을 해줄 수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Ly에 따르면:

“왜냐하면...한국인 입장에는... 당연히 하는 거[라서 설명을 잘 못 해줄 수도 있지만]...설명을 할 때는 ... [외국인] 친구[가] 그냥 친 친히 그냥 조금씩 조금씩 얘기해 줘서, ... 이렇게...쉬운 말로 설명하면 아 나도 이해할 수 있구내[라고 깨닫기가 쉬워요]”(Ly, 베트남)

두번째 이유는 앞서 살펴 보았듯이 한국인 학생들이 비영어권 동남아시아 학생들을 별로 선호하지 않기도 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자구책으로 마련한 측면이 있다. 한국인 학생들의 경우 외국어 학습을 위해 영어권이나 서구 언어권 외국인 유학생을 원하기 때문에 비영어권 동남아 학생의 경우 호의적이거나 원하는 방식의 도움을 구하기 어렵기도 하다. 캄보디아 출신의 석사과정생 Kosal은 모든

강의가 영어로 이루어지는 국제대학원에서 공부하고 있지만, 한국어 습득을 위해 노력하였던 과정에서 겪은 경험은 그 상황을 잘 드러내준다. 그는 한국어를 배우기 위해, 같은 캄보디아인 학생과 생활하던 기숙사에서 한국인 룸메이트로 바꾸어달라고 기숙사 사감께 부탁하여 방을 바꾸었다. 그렇지만, 그런 노력도 본인의 한국어 습득에는 도움이 되지 않았다. “한국인 룸메이트는 영어를 연습하고 싶어하는 거예요 나는 한국어를 말하고, 그 친구는 내게 영어로 말하고 서로가 반대였죠.”(Kosal) 이런 상황에서 Kosal에게 한국어를 쓰게 하려는 다른 외국인을 통해 한국어를 연습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얻을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이기도 했다.

“내게는 일본인 친구가 있어요 그 친구의 한국어 수준은 높고, 나의 한국어 수준이 낮은데도, 그녀는 항상 내게 한국어로 말했죠. ... 그게 훨씬 도움이 된 것 같아요.”(Kosal, 캄보디아, 국제대학원, 남)

VI. 결론 및 시사점

본 연구는 국제화 전략의 일환으로 급격하게 유학생을 다수 유치하고, 영어 강좌와 학위 프로그램을 도입하고 있는 서울 지역 상위권 사립 A 대학에 재학하는 동남아시아 출신 유학생의 실제 경험(lived experience)을 바탕으로 국내 대학에 재학 중인 외국인 유학생의 학업 경험과 어려움에 대한 대처전략을 탐색적으로 살펴보았다.

유학생들의 학업경험에 대한 연구 결과, 이들의 경험은 영어나 한국어 등 언어 능력을 포함한 개별적인 차원에 따른 상이성도 있지만, 이들의 경험은 집단적인 수준에서 보다 거시적이고 구조적인 맥락(Caluya et al. 2011: 85-6)의 영향을 크게 받았다. 다시 말해, 최근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는 영어 강의와 외국인 유학생 유치 등 한국 대학의 지표 지향적 국제화 맥락과 유학생의 필요를 뒷받침하는 환경이 부족함은 유학생의 학업 경험을 이해하는 데 가장 중요한 배경 요소임을 파악할 수 있었다(박소진 2013). 영어 구사 능력이 한국어 만큼 아니 한국어 보다 더 중요하게 작동하는 현재의 한국 대학의 맥락에서는 동남아시아의 비영어권 출신 유학생의 경우 특히 더 큰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Myles and Cheng 2003; Sherry et al. 2010; Zhang and Mi 2010). 유학생 유치를 위한 글로벌한 경쟁에서(Horta 2009; Marginson 2006; Marginson 2011; Walker 2010) 서울의 상위권 대학은 국내에서는 외국 유학생 중 상대적으로 우수한 학생들을 유치할 수 있었다(김지훈, 이민경 2011; 박소진 2013). 그러나, 대학 수준에서 유학생들의 학업을 지원하기 위한 노력은 부족하며, 비영어권 동남아시아 출신 유학생들은 학업 관련 어려움에 대해 개별적 차원에서 대처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인과 한국 대학의 영어 선호는 동남아시아 내 영어권 국가 출신과 기타 국가 출신 학생간의 학업 경험이 뚜렷하게 대조적이게 한다. 영어권 국가인 싱가포르와 필리핀 출신 유학생의 경우, 학업 관련 도움 얻거나 친구 사귀기가 오히려 쉽고, 한국인들이 “본인이 필요한 것을 얻을 때까지” 도와주는 호의를 받는 반면에, 동남아시아 내 비영어권 국가 출신 유학생들은 생존 지향적 학업 몰두와 인터넷을 통한 도움 얻기 등 개인적인 수준의 대처 전략을 추구할 수 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비균질적인 유학 경험은 출신국을 기준으로 영어권, 비영어권으로 단순하게 나누어지지 않고 그 구분이 다면적임을 알 수 있었다. 집단 수준의 유학생의 학업경험은 문과와 이과계열, 학부와 대학원 과정 재학 여부에 따라 대조적인 패턴을 보이는데, 이는 한국 대학의 세계화의 정도가 학위 과정과 전공 계열별로 균일하지 않은

측면에도 영향 받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공계 분야를 전공하는 학부생은 상대적으로 가장 어려움을 많이 겪는 경우로 파악되었다. 같은 이공 계열이라도 대학원생의 경우 연구실 중심으로 학습하고 생활하는 점 때문에 학업과 생활 관련 어려움이 반감된다. 더불어, 인문계열 학부생들이 영어 강좌 수강을 통해 학습의 전략을 수정할 수 있고, 친밀하게 지낼 수 있는 동료 학생을 접할 기회가 있는 데에 반해 이공계열의 학부생은 이 기회가 적은 상황에 처해있음을 알 수 있었다.

학업 및 유학생생활에의 어려움에 대한 다양한 대처 전략을 살펴볼 때 유학생의 적응과정은 단선적이거나 수동적이지 않으며(Gu et al. 2010: 13-20), 또한 같은 나라 출신 유학생 커뮤니티 형성 여부와 집단의 규모는 대처 전략의 수준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Heisler 2008; Kivisto 2001; Sawir et al. 2008). 영어권 출신의 유학생들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다수의 유학생은 한국 학생으로 부터 도움을 구하는 데에 있어서 상당한 어려움을 겪음으로 인해, 다양한 현실적인 대처 전략을 개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동남아시아 출신 유학생들 중에서도 상대적으로 그 수가 많은 베트남이나 필리핀의 경우, 모국출신 유학생 커뮤니티 내에서의 지지그룹을 형성함으로써 학업 관련 어려움이나 외로움의 해소를 위한 통로로 이용되고 있었고, 탈의 민족의 패러독스 개념(Kivisto 2001: 571-2; Erdal and Oeppen 2013: 873)이 실제 적용될 수 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라오스, 캄보디아, 동티모르와 같은 동남아시아 국가 중 한국대학에서 여전히 소수만이 유학 온 언어와 민족 모두 소수자 출신의 경우 유튜브를 비롯한 인터넷 미디어를 활용하거나 다른 외국인의 도움을 얻는 등 개인적인 수준의 대처 방법을 통해 학업 전략을 주로 모색하고 있었다. 이는 외국인 유학생을 위한 체계적인 학업 지원 환경이 아직 미비한 한국 대학의 현

실을 우선 스스로 해결하여야 하는 동남아시아 출신 유학생들의 자구책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볼 때, 국내 대학들은 해외 유학생을 유치하기 위한 세계화 전략에 경쟁적으로 임하고 있으나, 유치 노력에 비해 유지 및 관리를 위한 체계적인 지원 제도를 구축할 필요가 제기된다. 외국인 유학생을 적극적으로 유치하고있는 싱가포르나 홍콩 등(Mok 2011; Olds 2007; Sidhu 2009)에서 유학생들은 영어 강의와 교습 환경에 대해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는 연구가 시사하듯(Cheong et al. 2009; Trent 2012: 53), 한국 대학에서도 유학생 외국 학생들에 대하여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강좌뿐만 아니라 학업 능력 신장을 위한 다양한 강좌도 개설함으로써 각 대학에서 유치한 유학생들의 학업을 지원할 수 있는 체제가 마련되어야 할 필요성을 보여준다. 학부과정과 대학원 과정, 그리고 문과계열과 이과계열간 상이한 학업 경험은 이러한 지원 체계 또한 각 학위 과정과 학업 계열에 따라 차별화된 접근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주제어: 유학생, 고등교육 기관의 국제화, 동남아시아, 학업 경험, 질적 연구

〈참고문헌〉

- A 대학. 2011. 『대학자체 평가 결과보고서』 서울: A 대학 내부 자료.
- 교육인적자원부. 2006. 『고등교육의 국제화 전략』 서울: 교육인적자원부.
- 강이화, 김아영, 김대현. 2007. “중국인 유학생의 대학생활 적응경험에 관한 연구.” 『교육사상연구』 21(3): 65-88.

- 권양이. 2008. “외국인 유학생의 국내 대학 초기적응에 관한 질적 탐색.” 『한국 교육학 연구』 14(1): 301-333.
- 김군옥, 서임정, 손선영. 1973. “재한외국인 유학생의 실태 및 대한 국관.” 『사회학연구』 11: 56-78.
- 김귀성, 황지인. 2009. “재한 중국 유학생들의 문화적응 스트레스와 대학생활 적응간의 관계 연구.” 『학생생활연구』 29: 1-25.
- 김민선, 석분옥, 박금란, 서영석. 2010. “중국인 유학생들의 문화적응 스트레스와 우울 및 신체화의 관계: 부적응적 완벽주의와 적응적 완벽주의의 중재효과 검증.” 『한국심리학회지: 일반』 29(4): 725-745.
- 김선남. 2008. “재한 중국인 유학생의 한국TV드라마 시청행태에 관한 연구.” 『언론과학연구』 8(2): 122-148.
- 김종영. 2008. “글로벌 문화자본의 추구: 미국 유학 동기에 대한 심층면접 분석.” 『한국 사회학』 42(6): 68-105.
- 김지영, 김원인. 2008. “한국인 대학생과 중국인 유학생의 학교스트레스원이 여가제약에 미치는 영향.” 『관광연구』 23(2): 345-362.
- 김지훈, 이민경. 2011. “외국인 유학생들의 한국유학 동기와 경험 연구: 서울 A 대학 석사과정 학생들의 내러티브를 중심으로.” 『동아연구』 30(2): 73-101.
- 김태자, 민지은, 이상호. 2008. “외국인 유학생을 위한 도서관 이용 자교육 프로그램에 관한 연구.” 『학생생활연구』 33: 1-17.
- 나임순. 2006. “외국인 유학생의 문화적응 스트레스와 생활 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 『한국비영리연구』 5(2): 159-197.
- 박소진. 2013. “한국 대학과 중국인 유학생의 동상이몽: 서울과 지방 소재 사립대학 비교.” 『한국문화인류학』 46(1): 191-234.
- 박은경, 김민일. 2009. “외국인 유학생의 이주 및 적응.” 『한국지역지

- 리학회 학술발표논문집』 2009: 94-102.
- 박은미, 황빙의, 정태연. 2010. “재한 중국인 유학생의 대학생활 적응에 대한 질적 연구.” 『청소년상담연구』 18(2): 205-23.
- 송원영, 리난. 2008. “재한 중국인 유학생의 문화적응유형에 따른 유학 초기 심리적 적응의 차이.” 『한국심리학회지: 학교』 5(2): 159-173.
- 안영진. 2009. “외국인 유학생의 이주과정과 배경에 관한 연구.” 『한국경제지리학회지』 12(4): 344-363.
- 오재연, 남민우. 2009. “홀리스틱교육에 기초한 다문화캠퍼스에서 외국인 학생들의 교육 및 생활 실태분석과 효과적인 지원 방안 연구.” 『홀리스틱교육연구』 13(3): 131-155.
- 유지현, 송소원, 류민영. 2009. “중국인 유학생의 적응에 관한 실태 조사.” 『학생생활연구』 22: 57-96.
- 이민경. 2012. “지방대학 외국인 유학생들의 유학동기: A대학 아시아 유학생들의 한국유학 선택과 그 의미를 중심으로.” 『한국교육학연구』 18(2): 177-201.
- 이수상. 2009. “외국인 유학생들을 위한 디지털도서관의 다문화 서비스에 관한 연구.” 『인문학논총』 14(3), 191-217.
- 이익수, 지봉구. 2006. “중국 유학생의 한국생활 적응에 관한 연구.” 『산업경영연구』 29(5): 437-454.
- 이훈병. 2011. “유학생들의 한국어 강의 개선을 위한 기초연구.” 『순천향 인문과학논총』 28: 323-344.
- 임수진, 한규석. 2009. “중국인 유학생이 겪는 심리적 부적응에 미치는 사회: 심리적 요인 분석.” 『한국심리학회지: 학교』 6(34): 413-427.
- 임춘희. 2009. “중국인 유학생의 대학생활문화에서의 스트레스와 적응.” 『한국생활과학회지』 18(1): 93-112.

- 전재은, 장나영. 2012. “니하오? 국내 중국인 유학생의 한국 학생과의 교우관계: 중국인 유학생의 경험과 인식.” 『한국교육학연구』 18(1): 303-26.
- 주현준. 2007. “외국인 유학생 유치 전략 수립을 위한 요구 분석.” 『교육학연구』 45(3): 83-106.
- 주휘정. 2010. “외국인 유학생의 국내대학 학습경험에 관한 질적 연구.” 『교육문제연구』 36: 135-159.
- 출입국외국인정책 본부. 2011. 『2010년도 출입국 외국인 정책 통계연보』 경기도 과천: 법무부 출입국 외국인정책본부.
- 한국교육개발원. 2011. 『교육통계연보』 서울: 한국교육개발원.
- 황인원, 김형중, 김지훈. 2012. “말레이시아와 싱가포르 고등교육정책 변화의 정치경제적 함의.” 『동남아시아연구』 22(3): 123-167.
- Caluya, Gilbert, Probyn, Elspeth and Vyas, Shveta. 2011. “‘Affective Eduscapes’: The Case of Indian Students within Australian International Higher Education” *Cambridge Journal of Education* 41(1): 85-99.
- Cheong C, N. S. and Cheung C. 2009. *A Technical Research Report on the Development of Hong Kong as a Regional Education Hub*. Hong Kong: The Hong Kong Institute of Education.
- Creswell, J. W. 2007. *Qualitative Inquiry and Research Design: Choosing among Five Traditions* (2nd Ed). Thousand Oaks, CA: Sage.
- Dixon, M. 2006. “Globalisation and International Higher Education: Contested Positionings” *Journal of Studies in International Education* 10(4): 319-333.
- Erdal, Marta Bivand and Oeppen, Ceri. 2013. “Migrant Balancing Acts: Understanding the Interactions Between Integration and

- Transnationalism” *Journal of Ethnic and Migration Studies* 39(6): 867-884.
- Gu, Qing, Michele Schweisfurth and Christopher Day. 2010. “Learning and Growing in a Foreign Context: Intercultural Experiences of International Students” *Compare: A Journal of Comparative and International Education* 40(1): 7-23.
- Heisler, B. S. 2008. “The Sociology of Immigration” in Brettell and Hollifield (eds.) *Migration Theory: Talking Across Disciplines*. New York and London: Routledge.
- Horta, Hugo. 2009. “Global and National Prominent Universities: Internationalization, Competitiveness and the Role of the State” *Higher Education* 58(3): 387-405.
- Ishikawa, M. 2009. “University Rankings, Global Models, and Emerging Hegemony: Critical Analysis from Japan.” *Journal of Studies in International Education* 13(2): 159-173.
- Kivisto, P. 2001. “Theorizing Transnational Immigration: A Critical Review of Current Efforts.” *Ethnic and Racial Studies* 24(4): 549-577.
- Kim, Jeehun. 2010. “‘Downed’ and Stuck in Singapore: Lower/middle Class South Korean Wild Geese (*Kirogi*) Children in Public School.” *Research in Sociology of Education* 17: 271-311.
- Lal, B.B. 1990. *The Romance of Culture: Robert E. Park on Race and Ethnic Relations in Cities*. London: Routledge.
- Margins, S., and Sawir, E. 2005 “Interrogating Global Flows in Higher Education.” *Globalisation, Societies and Education* 3(3): 281-309.
- Marginson, Simon. 2006. “Dynamics of National and Global

- Competition in Higher Education.” *Higher Education* 52: 1-39.
- Marginson, Simon. 2007. “Global Position and Position Taking: The Case of Australia.” *Journal of Studies in International Education* 11: 5.
- Marginson, Simon. 2008. “Global Field and Global Imagining: Bourdieu and Worldwide Higher Education.” *British Journal of Sociology of Education* 29(3): 303-315.
- Marginson, Simon. 2011. “Higher Education in East Asia and Singapore: Rise of the Confucian Model.” *Higher Education* 61(5): 587-611.
- Marginson, Simon, and van der Wende, M. 2007. “To Rank or To be Ranked: The Impact of Global Rankings in Higher Education.” *Journal of Studies in International Education* 11(3-4): 306-329.
- Mok, Ka Ho. 2011. “The Quest for Regional Hub of Education: Growing Heterarchies, Organizational Hybridization, and New Governance in Singapore and Malaysia.” *Journal of Education Policy* 26(1): 61-81.
- Murphy-Lejeune. 2002. *Student Mobility and Narrative in Europe: The New Strangers*. London: Routledge.
- Myles and Cheng. 2003. “The Social and Cultural Life of Non-native English Speaking International Graduate Students at a Canadian University.” *Journal of English for Academic Purposes* 2(3): 247-263.
- Ninomiya, A., Knight, J., and Watanabe, A. 2009. “The Past, Present, and Future of Internationalization in Japan.” *Journal of*

- Studies in International Education* 13(2): 117-124.
- OECD. 2011. *Education at a Glance, 2011*. Paris: OECD.
- Olds, Kris. 2007. "Global Assemblage: Singapore, Foreign Universities, and the Construction of a 'Global Education Hub.'" *World Development* 35(6): 959-975.
- Sam, David Lackland. 2001. "Satisfaction with Life among International Students: An Exploratory Study" *Social Indicators Research* 53: 315-337.
- Sawir, E., Marginson, S., Deumert, A., Nyland, C., and Ramia, G. 2008. "Loneliness and International Students: An Australian Study." *Journal of Studies in International Education* 12(2): 148-180.
- Sherry, Mark, Peter Thomas and Wing Hong Chui. 2010. "International Students: A Vulnerable Student Population." *Higher Education* 60(1): 33-46.
- Sidhu, Ravinder. 2009. "Running to Stay Still in the Knowledge Economy." *Journal of Educational Policy* 24(3): 237-253.
- Trent, John. 2012. "The Internationalization of Tertiary Education in Asia: Language, Identity and Conflict." *Journal of Research in International Education* 11(1): 50-69.
- Walker, Patricia. 2010. "Guests and Hosts—: the Global Market in International Higher Education: Reflections on the Japan-UK Axis in Study Abroad." *Journal of Research in International Education* 9(2): 168-184.
- Waters, J., and Brooks, R. 2011. "International/transnational Spaces of Education." *Globalisation, Societies and Education* 9(2): 155-160.

- Wu, W., and Hammond, M. 2011. "Challenges of University Adjustment in the UK: A Study of East Asian Master's Degree Students." *Journal of Further and Higher Education* 35(3): 423-438.
- Zhang, Yanyin and Mi, Yinan 2010. "Another Look at the Language Difficulties of International Students." *Journal of Studies in International Education* 14(4): 371-388.

(2013.10.09 투고, 2013.10.16 심사; 2013.10.26. 게재확정)

<Abstract>

Exploring the Study Experiences of Southeast Asian Students at a Korean University in Seoul

Jeehun KIM (Inha University)

This study explores the study experiences of Southeast Asian students at a reputable Korean private university in Seoul. In particular, this study focuses on difficulties and coping strategies of both non-native speaker of English and native-speakers of English who are working for their undergraduate or postgraduate degrees. Interviews of fourteen students from five Southeast Asian countries were collected and analyzed by NVivo 9.

Thematic analysis result shows that many students, particularly non-native speakers of English, had much more difficulties than their counterparts, in contemporary Korean university context, where internationalization indices-driven strategies including expanding courses conducted in English language. Also, this study observes and documents contrasting patterns of different degree of difficulties experienced by students, depending on their degree levels and majors. Undergraduate students in science and engineering majors had the greatest degree of difficulties among all. In contrast, their graduate counterparts seem to have less difficulties. This might be related to the fact that graduate students in science and engineering majors are mostly

working with their peers in their own labs, which provides institutional support.

Coping strategies of students show that international students, facing unfavorable or unfriendly treatments by their Korean peers, developed innovative strategies, including using the internet technology to catch up with the classes that they could not fully understand. As a whole, adaptation process of international students do not seem to be passive or one-way. This study also provides policy implications for international students, particularly, who can be categorized as linguistic and ethnic minorities.

Key Words: University Students, International Students, Internationalization of Higher Education, Southeast Asian Students, Study Experience, Qualitative Study.

